

지역문화 진흥 시민 문화예술 향유 확대 '기대감'

지역문화 진흥과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 예술 활동 지원하게 될 '군산문화재단'의 설립과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군산문화재단은 시민의 문화 행복을 위한 문화예술 플랫폼으로서 군산다운 문화 예술 도시를 지향하며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복지 지원 △생애주기별 문화 예술 교육 및 지역문화전문인력 발굴을 위한 교육사업 △시민 문화예술 활성화 및 활동 지원 △문화 사각지대 해소 및 문화복지 증진 사업 △전문성을 강화한 문화기반 시설 운영 △기타 공모사업 추진 및 재정확보 다각화 등을 추진한 계획안을 갖고 재단 초기 안정화 후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지역내에서는 군산문화재단 설립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시도된 바 있었지만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문화재단 설립이 본격 추진됐다.

민들의 목소리를 끌어내 반영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문화 역량을 키워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역량을 모아나가는 방침이다. 실상 군산시는 문화재단이 없어 국가공모 사업에 선정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재단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문화재단이 있는 전주, 익산, 고창은 문체부 등 각종 공모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문화재단이 있는 지자체는 다양한 예술 분야와 장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지역 예술인들과의 공감적 소통이 원활하다는 평이 있다. 또한 재단을 통한 안정적인 창작활동 및 다양한 장르의 작품 활동 지원과 시민들의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 기반조성이 가능한 지역문화예술 창작 플랫폼으로 기능을 다할 것으로 본다.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교육
문화사각지대 해소 · 전문성 강화 문화기반 시설 운영 등
군산시, 출범과 함께 재단 안정화 다진 뒤 외연 확장키로

재단 출범에 따른 갑론을박 속에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조례 제정, 타당성 용역, 자문위원회 구성 등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들로 이어져 왔다. 현재 시는 재단 구성 및 세부 운영안 마련에 있어 공정성과 효율성을 우선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다. 재단 운영은 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고 비상임 대표이사 1인이 재단 업무와 재단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하고 인력운용은 사무국장과 팀장 등 설립 초기 6명에서 재단 수요에 따라 추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재단 안정화 단계를 거친후 관광분야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문화재단 출범에 따른 지역 예술인을 비롯 시민들의 높은 관심이 있는바 단순 관변단체로 전락하지 않고 문화에 대한 시

시는 문화재단 출범과 함께 각종 공모사업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민간기부(메세나) 활동 활성화, 크라우드 펀딩, 특화 사업을 실시해 빠른 시일내 재단 안정화를 다지고 지역문화 진흥과 시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외연을 확장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군산문화재단이 본격 출범된다면 군산다운이 살아있는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욱 더 깊어지고 더욱 더 넓어질 문화 예술을 시민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실 수 있도록 차질없이 문화재단 출범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군산=이재춘기자



“ 청소년이 아름다워야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제13회 전국 청소년 마술경연대회

2023년 4월 22일 오후시~3시
전주 중부 비전센터

주최: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주관: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후원: 전주매일신문사, 전주시

**본 행사는 전주시 보조금으로
진행됩니다.

